

국내 아동대상 창의성 연구의 경향분석: 1980년 이후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김 경 은¹⁾

김 리 진²⁾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국내 아동의 창의성 연구들은 고찰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적 특징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980년에서 2003년까지의 석박사 논문들 중 아동 창의성과 관련된 논문 412편을 기초로 하여 창의성 관련 변인,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창의성의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창의성 교육 방법과 매체에 관한 것이었고, 주 연구 대상은 유아였으며 실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측정도구로는 정원식 이영덕의 간편 창의성 검사, TTCT, 전경원의 K-CCTYC가 주로 사용되었다.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의 창의성 관심주제는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과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부모 혹은 가정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창의성 교육 방법 및 매체에 관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연구대상 측면에서 보면 최근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연구방법으로는 1980년대에는 조사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실험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창의성 측정도구 측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간편창의성 검사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TTCT, K-CCTYC 검사도구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주요어 : 창의성, 연구경향

1) 교신저자 : 김경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상지 창의성연구소 소장, E-mail : leejay48@chollian.net

2)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서울아동가족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1950년에 Guilford가 APA 취임연설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한 이후 교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와서는 경영·산업계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창의성 연구는 최근까지 심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Sternberg & Lubart, 1996) 20세기의 심리학자들은(예를 들면, 프로이트, 피아제, 로저스, 스키너 등) 일찍부터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년간 창의성 연구의 양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거의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Albert & Runco, 1999). 한마디로, 창의성 연구의 절정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에서도 창의성의 중요성은 훨씬 더 강조될 것이고 창의적인 인물들이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말 이후부터 창의성에 대한 논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창의성과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수 증가하였다. 1968년 김충희가 ‘창의성에 관한 실험연구’라는 제목으로 창의성에 관한 학위논문을 낸 이후로, 현재 창의성과 관련된 석박사학위 논문 검색결과 1980년대 이후¹⁾에서 2003년까지 발표된 창의성 관련 학위 논문은 총 133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발표된 창의성 관련 논문이 707편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에서 창의적인 인물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Schank와 Foster(1995)는 우리들 각 개인이 일년에 몇 개만이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학교교육에서도 창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주요 목표로 포함되었고, 이보다 앞서 1999년도에 통과된 ‘영재교육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영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은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간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인간(Rogers, 1961), 자아실현을 하는 인간(Maslow, 1962)이라고 볼 수 있다. Maslow(1959)는 창의성이 전제될 때 향상된 자기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반교육에서도 창의성을 주요 교육목적으로 강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Moyer와 Wallace(1995)는 자아실현과 창의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육의 역할이란 학생들이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성과 창의적 성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창의성은 플로우(flow)²⁾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

1) 창의성 연구의 고찰시기를 1980년부터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0-1979까지의 창의성 관련 논문은 총 28편으로 이 중 유아 및 아동 관련 논문은 7편이다. 하지만, 이 7편 중 3편만이 현재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연구에 포함되는 편수가 3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힌다.

2) 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플로우(flow)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완전히 빠져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중에는 없는 상태, 경험 그 자체가 무던히도 재미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순간 순간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며(Csikszentmihalyi, 1990), 자신이 완전히 깨어있고 살아있다고 느끼며 삶의 절정감(peak-experience)을 맛본다(Gardner, 1993).

한편, Mayer(1999)는 50년간의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창의성과 지능과는 어떻게 다른지,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창의적인 사고에 관여하는 인지적인 과정은 무엇인지, 창의적인 산물은 어떻게 생기는지,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은 어떠한지, 동기는 창의성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창의성의 생물학적 진화론적 기초는 무엇인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창의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창의성은 학습을 통해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외의 유아들의 창의성 연구를 고찰한 심성경, 백영애, 김나림(1998), 문미옥(1999)과 문미옥과 이용주(2000)에 따르면, 창의성 관련 연구들을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 남녀 아동간의 성차를 밝힌 연구, 창의성 검사 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가정 환경 변인 연구, 창의성 훈련효과에 대한 연구,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역할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 및 아동분야에서는 창의성의 개념적이거나 방법적인 면을 다루기보다는, 교수방법 유형, 상호작용, 심리적·물리적 환경조성에 따른 유아 창의성 증진 등 교수방법 및 교사역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문미옥, 1999). 창의성 연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측정도구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인수(2000)는 국내외의 창의성 도구들을 소개, 분류하고 기존 측정도구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 것이므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창의성 관련 연구들을 종단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대에 따라 창의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창의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를 가장 관심 있게 다루는지, 창의성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연구대상에 따라 어떠한 주제를 관심있게 다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시대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의성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창의성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성과 관련된 국내 논문들 중 유아 및 아동기 논문들을 중심으로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적 특징의 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연구대상에 따라 (유아와 아동으로 구분) 주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창의성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창의성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 및 아동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국내 아동의 창의성 연구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헌고찰 자료 수집 과정과 분석들을 통해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최근까지 이루어진 창의성에 관한 국내 논문을 조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국회도서관 DB, 국립중앙도서관DB, 고려대학교 DB로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색한 결과 1980년대 이후에서 2003년까지 발표된 창의성 관련 학위 논문은 1333편이었으나, 이를 유아·아동 교육 발달 영역으로 제한하자 474편이 나왔다. 이 중에서 창의성과 관련이 없는 논문³⁾과 미소장된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2편을 최종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들을 기초로 창의성 관련 변인과 연구의 흐름, 사용된 연구 방법적인 특징을

검토하였다.

분석틀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창의성 관련 연구를 관련 변인, 연구대상, 측정도구,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그 경향성을 알아볼 것이다.

분석함에 있어 최근 논문들에 나타난 관련 변인들의 분석틀은 <표 1> 같다.

관련변인

창의성 연구의 관련변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의적 인성 및 성향, 창의성 발달

표 1. 분석틀

관 련 변 인	연 구 대 상	학위논문의 연구 방법	측 정 도 구
1. 창의성 교육의 방법과 매체 2.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3. 학급환경 4. 교사의 역할 5. 가정·부모의 특성 6. 창의적 성향과 인성특징 7. 창의성의 개념 및 정의 8. 창의성 측정과 평가	1. 만 3,4,5세(유아) 2. 초등학교 1, 2, 3학년 3. 초등학교 4, 5, 6학년 4. 기타 (아동을 포함하지 않고 부모나 교사가 연구대상인 경우)	1. 실험법 2. 조사법 3. 문헌 연구법 4. 기타	1. TTCT(1974) 2. 전경원(1995)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K-CCTYC) 3. Wallach & Kogan(1965)의 검사 4. 이경화, 이신동(2003)의 유아 통합 창의성 검사 5. 이신동, 이경화 등(2001)의 올림피아드 창의성 검사 6. 김상윤(1997)의 칠교판 7. 임선하의 창의성 검사 8. Amabile의 CAT(1982) 9. Rimm(1976)의 PRIDE 10. Jellen & Urban(1986) TCT-DP 11. 김춘일, 문태형(2001)의 어린이 창의성 검사 12. 이영덕, 정원식(1996)의 간편 창의성 검사 13. 기타

과 창의성 교육, 창의성의 개념 및 정의, 창의성 측정 및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창의성 발달과 창의성 교육에는 아동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창의성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 매체,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 교실환경, 교사의 역할, 가정 환경이나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특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8가지 관련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성향이나 인성 특징**이란 창의적인 아동들이 갖는 인성특징이나 성향으로 여기에는 아동의 동기, 자아개념, 자존감, 정서, 성취욕구, 인지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둘째, **창의성 교육의 방법과 매체**는 아동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나 매체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동화, 컴퓨터, 놀이, 독서, 음악, 무용, 동작활동 등을 통한 창의성 교육 방법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까지 검증한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창의적 사고력 프로그램,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넷째, **학급(교실)환경**이란 아동이 수업을 받는 수업환경, 교실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교실 혹은 수업의 분위기, 교실의 개방적 혹은 폐쇄적인 환경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교사의 역할**이란 아동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사의 역할로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신념, 교사의 질문 방법, 교사의 문제 제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가정 및 부모의 특성**이란 아동의 창

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수준, 가정환경 변인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행동,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창의성의 개념 및 정의**란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 창의성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살펴본 연구들이 포함된다.

여덟째, **창의성 측정 및 평가**란 유아나 아동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이거나 아동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유아 및 유치,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기타로 구분하였다. 유아 및 유치아동은 만 3, 4, 5세에 해당되며 이 시기는 창의적 상상력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Torrance, 1976)이며 창의성 발달의 첫 번째 절정기(Dacey, 1999)라고 볼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은 초등 1,2,3학년에 해당되며 이 때는 형식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로 경직된 학교 제도나 획일적인 교육 과정 운영 등으로 인해 창의성이 서서히 감퇴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초등 고학년은 초등 4, 5, 6학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창의성 발달에 있어 두 번째 절정기(Dacey, 1999)로, 창의성은 자아개념이나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불안정성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Ripple & Dacey, 196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에게까지 부여되는 입시에 대한 부담감, 경직된 학교 제도, 경쟁적이고 타율적인 사회문화 등의 영향으로 창의성이 감퇴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3) 한 예로 창의성으로 검색했을 경우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유아발달수준조사’와 같은 논문도 포함이 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실험법, 조사법, 문헌연구법, 관찰법, 면접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사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법, 조사법, 문헌 연구법, 기타로 구분하였다.

측정도구

창의성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개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측정 도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Puccio & Murdock, 1999).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조기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고 따라서 심리 측정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표준화된 유아 아동 창의성 측정도구가 거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최인수, 2000). 창의성 측정 도구는 크게 창의성 사고 검사, 창의성 성향 검사, 창의적 산물 검사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현재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을 제시하고, 어떤 측정도구가 어떤 대상에게 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부록1>에 제시된 측정도구 중 TTCT, TCI-DP, Wallach & Kogan의 검사도구, 칠교판, 전경원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김춘일, 문태형의 어린이 창의성 검사, 임선하의 검사도구, 이신동과 그의 동료들의 올림피아드 창의성 검사는 창의적 사고 검사에 해당되고, 창의적 성향 검사에는 PRIDE, GIFT, GIFFI가 포함되고, 창의적 산물 검사에는 CAT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경화, 이신동의 유아 통합창의성 검사는 창의적 성향검사와 인지 사고 검사를 함께 다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창의성 연구의 경향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창의성 관련 연구의 흐름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국내 창의성 관련 논문의 관련변인, 연구대상, 방법론, 측정도구별로 살펴보고, 관련 논문을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창의성 관련 논문 412편을 가지고 변수,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창의성과 관련된 변수별로 살펴보면, 창의성 교육 방법과 매체와 관련된 변수가 222편(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 변인(15.1%), 가정 부모 변인(14.0%), 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12.8%), 교사 변인(7.5%), 학급분위기와 같은 환경 변인(5.2%) 순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창의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1.1%)와 측정도구 개발 연구(1.9%)가 있었다.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취학전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297편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총 210편으로 전체의 40.4%였다. 그중 고학년(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61편(31.0%), 저학년(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표 2. 1980년부터 2003까지 창의성연구 실태

관 련 변 인(%)		연 구 대 상(%)		연 구 방 법(%)		측 정 도 구(%)	
1.매체	222(42.4)	1.유아	297(57.1)	1.실험법	285(54.5)	1.TTCT	121(25.2)
2.프로그램	67(12.8)	2.초등저학년	49(9.4)	2.조사법	193(36.9)	2.K-CCTYC	114(23.8)
3.학급환경	27(5.2)	3.초등고학년	161(31.0)	3.문헌연구법	31(5.9)	3.Wallach & Kogan	18(3.8)
4.교사	39(7.5)	4.기타	13(2.5)	4.기타	14(2.7)	4.유아통합	14(2.9)
5.가정·부모	73(14.0)					5.올림피아드	2(0.4)
6.아동	79(15.1)					6.칠교판	3(0.6)
7.개념과 정의	6(1.1)					7.임선하	3(0.6)
8.측정과 평가	10(1.9)					8.CAT	1(0.2)
						9.PRIDE	1(0.2)
						10.TCT-DP	3(0.6)
						11.어린이 창의성	20(4.2)
						12.간편창의성	128(26.7)
						13.기타	52(10.8)
전체	523(100)	전체	520(100)	전체	523(100)	전체	480(100)

경우가 그보다 적은 49편(9.4%)이었다. 그 외에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 교사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13편(2.5%)이 있었다.

창의성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구분해보면, 실험법이 285편으로 전체 54.5%를 차지했고, 그 외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법(36.9%), 문헌연구법(5.9%)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별로 살펴보면, 정원식 이영덕의 간편 창의성검사(26.7%), TTCT(25.2%)와 전경원의 K-CCTYC (23.8%)가 전체의 75.7%를 차지했고, 그 외는 측정도구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경향

창의성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80년

대 이후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시대별 창의성 관련 변인,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를 살펴보았다.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관련변인 경향

관련변인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980년대에는 창의성 관련 논문이 총 46편이었고, 그 후 90년대에는 245편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1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는 창의성 관련 논문이 232편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의 창의성 논문 총 46편 중, 창의적 아동특성변인(13편), 가정 및 부모 변인(12편), 창의성 교육관련 매체(10편), 교사 변인(5편),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3편), 창의성 관련 수업의 학습환경에 관련된 변인(2편), 창의성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1편)순으로 고루 나타났다. 그러나 창의성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연구는 전혀

표 3.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관련 변인 실태

1980 - 1990		1991 - 2000		2001 - 2003	
1.교육방법 및 매체	10(21.7)	1.교육방법 및 매체	88(35.9)	1.교육방법 및 매체	124(53.4)
2.프로그램	3(6.5)	2.프로그램	36(14.7)	2.프로그램	28(12.1)
3.학급환경	2(4.3)	3.학급환경	18(7.3)	3.학급환경	7(3.0)
4.교사	5(10.9)	4.교사	20(8.2)	4.교사	14(6.0)
5.가정 · 부모	12(26.1)	5.가정 · 부모	33(13.5)	5.가정 · 부모	28(12.1)
6.아동특성	13(28.3)	6.아동특성	42(17.1)	6.아동특성	24(10.3)
7.개념과 정의	0	7.개념과 정의	5(2.0)	7.개념과 정의	1(0.4)
8.측정과 평가	1(2.2)	8.측정과 평가	3(1.2)	8.측정과 평가	6(2.6)
전체	46(100)	전체	245(100)	전체	232(100)

없었다.

1990년대 창의성 관련 논문은 총 245편으로 크게 증가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한 방법 및 매체(35.9%)와 창의성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14.7%)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그 외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17.1%), 가정 및 부모 변인(13.5%)과 교사의 특성(14.0%)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90년대에는 80년대에 비해 창의성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창의성 교육에 있어 매체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 외에도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1년 이후 최근 3년간 창의성 관련 논문은

232편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도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12.1%)를 알아보는 연구보다는 다양한 교육 방법 및 매체들의 발달로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매체(53.4%)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았다. 그 외의 변인으로는 가정 및 부모의 특성 변인(12.1%), 아동의 특성 변인(10.3%)과 교사의 특성 변인(6.0%)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창의적 수업을 위한 학급 환경에 관한 연구(3.0%), 창의성 개념에 관한 연구(0.4%)와 창의성 측정 및 평가(2.6%)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연구대상 실태

1980 - 1990		1991 - 2000		2001 - 2003	
1.유아	20(43.5)	1.유아	129(52.7)	1.유아	148(64.6)
2.초등저학년	5(10.9)	2.초등저학년	17(6.9)	2.초등저학년	27(11.8)
3.초등고학년	20(43.5)	3.초등고학년	94(38.4)	3.초등고학년	47(20.5)
4.기타(부모,교사)	1(2.2)	4.기타(부모,교사)	5(2.0)	4.기타(부모,교사)	7(3.1)
전체	46(100)	전체	245(100)	전체	229(100)

<표 4>과 같다.

1980년대의 창의성 논문 총 46편으로, 그 중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20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0편, 그 외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이었다. 80년대에는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1990년대의 창의성 논문은 총 245편으로, 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129편으로 52.7%였다. 그 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94편(38.4%),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17편(6.9%),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5편(2.0%)이 있었다. 90년대에는 연구 대상의 비율로 볼 때, 80년대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2001년 이후의 창의성 논문 총 229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48편으로(64.6%)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47편(20.5%), 초등학교 저학년이 27편(11.8%),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7편(3.1%)였다.

시대별로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비율은 점점 줄고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기 창의성 교육

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연구방법

연구방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980년대의 창의성 논문 총 46편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법이 29편(6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법이 16편 있었다. 기존의 창의성에 관한 문헌을 연구한 논문도 한편 있었다.

1990년대에는 창의성 연구가 245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와는 달리 논문의 절반 이상인 127편(51.8%)이 실험법이었고, 조사법이 그보다 적은 100편(40.8%)였다. 그 외에 문헌 연구법의 논문도 18편 있었다.

2001년 이후 최근 3년간 창의성 논문 총 232편 중,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법이 142편으로 그 비율이 61.2%였으며, 조사법(27.6%)이나 문헌연구법(5.2%)은 그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그 외에 예체능 과목이나 실과 등 특정 과목에서 창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업을 제안하는 논문도 14편이나 있었다.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측정도구

측정도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5. 시대별 창의성 연구의 연구방법 실태

1980 - 1990		1991 - 2000		2001 - 2003	
1.실험법	16(34.8)	1.실험법	127(51.8)	1.실험법	142(61.2)
2.조사법	29(63.0)	2.조사법	100(40.8)	2.조사법	64(27.6)
3.문헌연구법	1(2.2)	3.문헌연구법	18(7.3)	3.문헌연구법	12(5.2)
4.기타	0	4.기타	0	4.기타	14(6.0)
전체	46(100)	전체	245(100)	전체	232(100)

표 6. 연도별 창의성 연구의 척도 실태

1980 - 1990		1991 - 2000		2001 - 2003	
1.TTCT	14(31.1)	1.TTCT	54(24.0)	1.TTCT	53(25.2)
2.K-CCTYC	0	2.K-CCTYC	57(25.3)	2.K-CCTYC	57(27.1)
3.Wallach & Kogan	4(8.9)	3.Wallach & Kogan	8(3.6)	3.Wallach & Kogan	6(2.9)
4.유아통합	1(2.2)	4.유아통합	0	4.유아통합	13(6.2)
5.올림피아드	0	5.올림피아드	0	5.올림피아드	2(1.0)
6.칠교판	0	6.칠교판	1(0.4)	6.칠교판	2(1.0)
7.임선하	0	7.임선하	1(0.4)	7.임선하	2(1.0)
8.CAT	0	8.CAT	0	8.CAT	1(0.5)
9.PRIDE	0	9.PRIDE	0	9.PRIDE	1(0.5)
10.TCT-DP	0	10.TCT-DP	1(0.4)	10.TCT-DP	2(1.0)
11.어린이 창의성	0	11.어린이 창의성	6(2.7)	11.어린이 창의성	14(6.7)
12.간편창의성	21(46.7)	12.간편창의성	82(36.4)	12.간편창의성	25(11.9)
13.기타	5(11.1)	13.기타	15(6.7)	13.기타	32(15.2)
전체	45(100)	전체	225(100)	전체	210(100)

<표 6>과 같다.

1980년대의 창의성 논문 총 45편 중, 간편 창의성 척도로 측정된 논문 21편, TTCT로 측정된 논문 14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이거나 각 영역별 창의성 측정도구로 측정된 논문 5편, Wallach와 Kogan의 척도로 측정된 논문 4편, 유아 통합검사 척도로 측정된 논문 1편 순이었다.

1990년대에는 창의성 관련 논문이 225편으로 크게 증가했고, 측정도구도 다양해졌다. 1980년대와 동일하게 간편 창의성 척도로 측정된 논문 82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전경원이 개발한 K-CCTYC로 측정된 논문(57편)으로 TTCT로 측정된 논문(54편)보다 많았으며, 기존에 있던 창의성 측정도구 외에 칠교판, 임선하가 개발한 도구, TCT-DP, 어린이 창의성 척도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연구된 창의성 관련 논문은 총 210편에 달하며, 이전보다 다양한

측정도구를 이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TTCT(53편)와 K-CCTYC(57편)가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와는 달리 간편 창의성 척도로 측정된 논문은 25편으로 많이 줄었고, 어린이 창의성 검사(14편), 유아 통합검사(13편), Wallach와 Kogan의 척도(6편), 올림피아드(2편), 칠교판(1편), 임선하가 개발한 척도(1편), CAT(1편), PRIDE(1편)로 측정된 논문이 새롭게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창의성 연구의 관련변인

연구대상별로 관련변인을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대상별로 관련변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창의성 교수 방법 및 매체와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158편)이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표 7. 연구대상별 관련변인

유아(취학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기타(부모, 교사)	
1.매체	158(53.2)	1.매체	23(46.9)	1.매체	38(23.6)	1.매체	0
2.프로그램	34(11.4)	2.프로그램	10(20.4)	2.프로그램	23(14.3)	2.프로그램	0
3.학급환경	14(4.7)	3.학급환경	3(6.1)	3.학급환경	10(6.2)	3.학급환경	0
4.교사	22(7.4)	4.교사	3(6.1)	4.교사	5(3.1)	4.교사	9(69.2)
5.가정·부모	34(11.4)	5.가정·부모	3(6.1)	5.가정·부모	33(20.5)	5.가정·부모	3(23.1)
6.아동의 특성	29(9.8)	6.아동의 특성	2(4.1)	6.아동의 특성	47(29.2)	6.아동의 특성	1(7.7)
7.개념과 정의	4(1.3)	7.개념과 정의	1(2.0)	7.개념과 정의	1(0.6)	7.개념과 정의	0
8.측정과 평가	2(0.7)	8.측정과 평가	4(8.2)	8.측정과 평가	4(2.5)	8.측정과 평가	0
전체	297(100)	전체	49(100)	전체	161(100)	전체	13(100)

한 논문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동일하게 대부분 창의성 교수의 매체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논문이(23편, 46.9%)이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다른 점은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을 주요변인으로 한 논문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창의성 관련 아동의 특성(29.2%)을 관련변인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그와 유사한 비율로 창의성 교수매체(23.6%), 가정·부모의 특성(20.5%)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창의성 논문들을 관련변인,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측면에서 살펴본 후, 시대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연구 대상에 따라 어떠한 주제로 연구가 가장 많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 이후 2003년까지의 국내 창의

성 논문에서, 창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는 전반적으로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창의성 교육방법이나 매체,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 아동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가정 부모의 특성이었다. 이 중 창의성 교육방법이나 매체, 훈련 프로그램을 크게 ‘창의성 교육 및 발달’로 묶는다면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55.2%로, 우리나라 창의성 연구 주제가 아동의 창의성 교육 및 발달을 위한 연구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아가 주 연구대상이었고, 연구방법적 측면에서는 실험법이 가장 우세를 보였으며, 측정도구는 정원식, 이영덕의 간편 창의성검사, Torrance의 TTCT와 전경원의 K-CCTYC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연구대상, 측정도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의 주된 관심 주제가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매체,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과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실험설계가 많이 사용되었고, 유아기와 아동기 중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시기가 유아라는 점(Torrance, 1976)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전경원의 K-CCTYC는 1990년 이후의 창의성 연구에서 급격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둘째, 시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는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가정 환경 변인, 창의성 교육방법과 매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는 창의성 연구의 양적인 증가만큼, 창의성 관련 주제도 훨씬 다양해졌다. 여전히 창의성 교육방법과 매체와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가장 많았으나, 창의적인 아동들의 특성, 창의성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가정 환경변인, 교사변인, 학급환경 변인, 창의성의 개념과 정의, 창의성의 측정과 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이 골고루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창의성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연구(232편)의 수가 1991년에서 2000년의 10년동안에 이루어진 연구의 수(245편)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이전보다 연구의 양적인 측면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연구의 주제는 보다 더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방법 및 매체, 창의성 훈련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의성의 정의나 개념/측정과 같은 이론적인 연구는 배제된 채, 실제 적용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어 이론과 적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대로 된 창의성 교육방법, 매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창

의성 정의, 개념, 측정도구들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본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방법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모래위의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창의성의 정의나 개념, 측정도구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대에 상관없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에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비율이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4, 5세가 창의적 상상의 절정기(Torrance, 1976)이자 성장, 발현기(Meeker, 1978)이고,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 교육(형식교육)으로 인해 ‘창의성의 잠재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구가 너무 한 연령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유아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이런 소수의 연구들만으로는 초등학생들의 창의성들을 성급하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물론 제도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유아들에 비해 낮은 창의성을 보이기(Meeker, 1978)도 하겠지만, 초등학생들 내에서도 창의성의 역동성이 존재하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유아보다 더 창의적일 수도 있다. 한 예로, Dacey(1999)는 초등 고학년에 해당되는 10-13세를 ‘창의성의 제2의 절정기’로 보았다. 창의성이란 자아개념이나 동기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므로 인생의 전환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창의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Ripple & Dacey, 1969).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

때,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나 지금이나 실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주제가 대부분 창의성 교육의 방법이나 매체, 프로그램의 효과이다 보니 실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험법은 가외변인의 통제가 가능하고, 처치의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험법의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가외변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집이나 집단의 배정이 적절하지 않아 실험설계라고 하기 힘든 연구도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특정 교육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실험설계가 요구된다.

측정도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정원식·이영덕의 간편 창의성 검사와 TTCT검사가 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보다는 다양한 측정도구들의 사용이 시도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편 창의성검사, TTCT, 전경원의 K-CCTYC가 주로 사용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다양한 검사도구들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전경원의 K-CCTYC, TTCT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K-CCTYC를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빈도가 급증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창의성을 초기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고, 따라서 심리측정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표준화된 유아·아동용 창의성 측정도구가 거의 없다는(최인수, 2000) 것을 입증해준다. 유아의 창의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창의성 측정도구를 개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창의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창의적 사고 검사로 너무 치우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창의성 검사의 경우 크게 창의적 사고검사, 창의적 인성검사, 창의적 산물검사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창의적 사고검사에만 편중하여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 산물을 통한 창의성 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창의적 사고검사가 실시하기도 용이하고 해석하기도 용의하며 비용도 절약된다는 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 예측되지만, 아동이 지닌 창의적 능력을 제대로, 충분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간편 창의성 검사, TTCT와 K-CCTYC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개발된 검사들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몇몇 창의성 측정도구는 타당도나 신뢰도를 보고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거나, 연구자 임의대로 기존의 측정도구들을 조합하거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등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일회성 도구로 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에 외국의 측정도구들을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점수 간에 일치를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에 앞서, 창의성 개념과 하위항목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도구의 한계점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연구대상별 창의성 연구의 관련변인을 살펴보면 유아의 경우 창의성 교육 방법 및 매체, 훈련 프로그램,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가정 부모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는 창의적 상상력의 절정기이고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기이므로 ‘창의성 교육 및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 유아와는 다르게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과 창의성 교육의 방법 및 매체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는 창의성의 제2의 절정기로 아동들이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기이므로, 창의적 아동의 특성에 관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의성 연구의 흐름에 대해 양적인 측면에서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본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연구의 흐름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연구의 세부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국내 학회지에도 상당수의 수준높은 창의성 논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 창의성 논문을 전체를 훑어보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창의성 연구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전 연

구들의 동향과 문제점들을 밝히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문미옥 (1999).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 역할 평정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4(4), 25-42.
- 문미옥, 이용주 (2000).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 역할 수행 분석 연구. *유아교육연구*, 20(2), 223-242.
- 심성경, 백영애, 김나림 (1998).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연구*, 18(2), 51-68.
- 최인수 (2000). 유아 창의성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20(2), 139-166.
- Albert, R. S., & Runco, M. A. (1999). A history of research and creativity. In Sternberg, R.J.(ed.), *Handbook of creativity*(pp.16-31).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Dacey, J. S. (1999, Originally published 1989). Peak periods of creative growth across the lifespan. In Puccio, G. J., & Murdock, M. C.(Ed.). *Creativity assessment: Reading and resources*(323-345). Buffalo, NY: CEF Press.
- Davis, G. A., & Rimm, S. B. (1982). Group inventory for finding interest(GIFFI) I and II: Instrument for identifying creative potential in th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6, 50-57.
- Ga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House.

- Maslow, C. (1961). *Toward the psychology of being*. (2nd ed.). Princeton: D. Van Nostrand.
- Mayer, R. E. (1999). Fifty years of creative research. In Sternberg, R. J. (Ed.), *Handbook of creativity* (pp.449-460).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yer, J. & Wallace, D. (1995). Issues in education: Nurturing the creative majority of our schools-A response, *Childhood Education*, 72(1), 34-35
- Puccio, G. J., & Murdock, M. C. (1999). *Creativity assessment: Reading and resources*. Buffalo, NY: CEF Press.
- Ripple, R. E., & Dacey, J. S. (1969). Relationships of some adolescent characteristics and verbal creativity. *Psychology in the schools*, 6, 321-324.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Schank, R., & Foster, D. A. (1995). The engineering of creativity: a review of Boden's the creative mind. *Artificial Intelligence*, 75, 129-143.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prospect and paradigm. In Sternberg, R. J. (Ed.), *Handbook of creativity* (pp.3-15).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rance, E. P.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NY: Robert E. Krieger.

The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concerning Korean children's creativity

Kim, Kyoung-eun

Kim, Lee-jin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creativity research from 1980 to 2003. 412 master's and doctoral theses were reviewed in terms of relating variables(research theme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sca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constantly visited themes in creativity research are the method and mediator for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program. The main subjects in creativity research are preschoolers. Experimental methodology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ology in creativity research, while Brief Creativity test, TTCT, and K-CCTYC are frequently used.

Keywords : creativity. research trend.

〈부록 1〉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1. Torrance(1974)의 TTCT(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2. 전경원(1995)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K-CCTYC)
3. Wallach & Kogan(1965)의 검사도구
4. 이경화, 이신동(2003)의 유아 통합 창의성 검사
5. 이신동, 이경화, 전경원, 정미경, 박숙희 (2001)의 올림피아드 창의성 검사
6. 김상윤(1997)의 칠교판
7. 임선하(1993)의 검사도구
8. Amabile(1982)의 CAT(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9. Rimm(1976)의 PRIDE(Preschool and Primary Interest Descriptor)
10. Jellen & Urban(1986) TCT-DP(Test for Creative Thinking Drawing Production)
11. 김춘일, 문태형(2001)의 어린이 창의성 검사
12. 이영덕, 정원식(1996)의 간편 창의성 검사
13. 기타